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 중심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희망과 일체감이라는 독특한 기별을 북미 지회와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청지기부는 모든 교인들이 이 비전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헌금은 충실한 청지기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헌금을 사용하십니다.

웹사이트 www.nadstewardship.org/videos 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헌금을 강조하는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헌금 수합 시간에 이용하실 수 있고, 영상의 평균 길이는 1 분 30 초에서 2 분 사이입니다.

충실한 청지기 생활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해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너그러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실천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충실한 청지기의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Michael Anthony Harpe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북미 지회 청지기부장

북미 지회 내 청지기 부장

Marcos Bomfim, General Conference

Michael Harpe, North American Division

Cynthia Huskins, Atlantic Union

Paul Musafili, Seventh-day Adventist Church in Canada

Emmanuel Asiedu, Columbia Union

Jermaine Jackson, Lake Union

David VandeVere, Mid-America Union

Brent Plubell (Acting), North Pacific Union

Stephen Mayer, Pacific Union

David Long, Southern Union

Tony Anobile, Southwestern Union

Marcey Lachance, Guam-Micronesia Mission



저자 소개

앤서니 M. 리드(Anthony M. Reid)

박사(DMin.)는 현재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
합회에서 청지기부장과-종교자유부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의 목회 사역에는 지역 교회
목사, 가정봉사부장, 복음 전도자, 대학교
강사, 세미나 발표자 그리고 기독교

상담가로서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 젊은 시절 그는 전 대총회
청지기부장이었던 벤 맥슨(Ben Maxon)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 청지기
직분에 대한 견해와 실천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앤서니 목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청지기로
삼으셨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세미나를 인도할
때 청지기 원칙을 가정과 연결시키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최근 그는
소속 합회에서 진행하는 청지기 사역의 일환으로 청지기직의 다섯 가지
기초 원칙(예배, 건강, 선교, 재물, 세상)에 관한 소책자를 집필했다.

그는 정신과 몸을 재충전하기 위해 음악 감상, 헬스장 운동, 탁구 그리고
자연 속에서 잔디와 채소밭을 가꾸는 일을 즐긴다.

현재 그는 캐나다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의 한 도시에서 아내
웬디(Wendy)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웬디는 인사(HR) 및 이민
컨설턴트이며, 두 사람은 재림교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
아마리사(Amarissa)를 두고 있다.

낭독문에 관하여

이 자료는 추가 허가 없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단체에 의해 번역, 인쇄 또는 복사될 수 있다. 다만 재발행 된 문서에는 복미 지회 청지기부라는 크레딧 라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절은 개역개정 역본을 사용했다.

개인 헌금 계획 (My Personal Giving Plan)에 관하여

복미 지회는 “개인 헌금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로 만들어졌다. 이 계획은 각 교인이 수입의 10 퍼센트인 십일조 외에 특정 비율의 헌금을 정해 세 가지 범주를 위해 드리도록 제안하고 있다:

- Local Church Budget (지역 교회 예산): 3-5 퍼센트
- Conference Advance (합회 지원 헌금): 1-2 퍼센트
(교육, 선교, 방학성경학교, 여름 캠프, 연합회 잡지)
- World Budget (세계 선교 헌금): 1-3 퍼센트

<https://www.personalgivingplan.com> 에 방문하면 각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다.

개인 헌금 계획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 청지기 원칙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도록 독려한다. 이 계획을 통해 교회 전체가 축복을 받지만, 이 계획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믿음에 기초한 언약에 굳게 선 우리 각자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질서와 목적을 갖고 있다. 개인 헌금 계획도 마찬가지다. 다른 모든 계획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요한다. 감정이나 산발적인 헌금을 통해서서는 어떤 위대한 사역도 이룰 수 없다.

2026 년 헌금 일정 – 북미 지회

특별 헌금

1 월 10 일	종교 자유
2 월 14 일	TV 방송 선교
3 월 14 일	세계 라디오 선교 (Adventist World Radio)
4 월 11 일	국제 호프 채널
5 월 9 일	재난 및 기근 구호
6 월 13 일	여성전도부 사역
7 월 11 일	세계 선교 헌금
8 월 8 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기록 사역
9 월 12 일	세계 선교 헌금 (강조: 라디오 선교)
11 월 14 일	세계 선교 헌금 (강조: 연말 희생감사)
12 월 12 일	어드벤처리스트 커뮤니티 서비스

2026 년 열 셋째 안식일 헌금

- 1 가: 남태평양지회 (SPD)
- 2 가: 동중아프리카지회 (ECD)
- 3 가: 인터유럽지회 (EUD)
- 4 가: 트랜스유럽지회 (TED)

헌금 요약

지역 교회 예산	27
합회 지원 헌금	12
연합회 지원 헌금	2
북미 지회	5
세계 선교	6

내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열 셋째 안식일 헌금

여러분은 아미쉬 공동체 사람들이 헛간을 건축하기 위해 어떻게 서로 돕는지 들어봤을 것이다 (a barn raising- 커뮤니티 구성원 중 한 명의 헛간이 모든 구성원에 의해 집단적으로 건설되거나 재건되는 커뮤니티의 집단 행동. 역자 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도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열 셋째 안식일 헌금의 목적이다. 매 열 셋째 안식일마다 전세계 모든 교회는 여러 지회 중 한 곳이 추진하고 있는 한 개의 선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한다. 선교 프로젝트는 주로 교육, 전도 또는 미디어 선교를 위해 사용될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된다. 열 셋째 안식일 헌금은 센트럴 필리핀 재림교회 대학과 같은 학교를 설립하는 데도 사용되어왔다. 최근 드러진 헌금으로 벨리즈에 청소년 캠프를 위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다.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헌금을 드림으로 이런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1913 년 열 셋째 안식일 헌금액은 474 달러였지만, 지금은 25 만 달러가 넘게 드러진다. 우리는 이 헌금을 가리켜 추가 헌금 (overflow offering)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드러지는 선교 헌금 외에 추가로 헌금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열 셋째 안식일 헌금의 25 퍼센트는 추가분으로 간주된다. 나머지 헌금은 전 세계적인 선교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또한 십일조 봉투에 표시해서 언제든지 열 셋째 안식일 헌금을 드릴 수 있다. 여러분은 큰 사역의 일부가 되어 동참하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열 셋째 안식일 헌금을 기억하여 드러보라. 여러분은 세계적인 재림교회 선교 사역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이다. 선교 사역을 마치기 위해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하라.

Birthday Thank Offering(생일 감사 헌금)

우리는 생일 때 보통 선물을 받는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 오히려 선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생일 감사 헌금이라고 부른다. 혹시 누군가에게 감사의 선물을 줬 본 경험이 있는가?

아마도 주말 동안 당신의 고양이를 돌봐주거나 당신의 결혼식에서 축하를 불러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저 당신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끼는지 보여주고 싶어 선물을 줄 수도 있다. 교인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순수하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축복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일이 그 중 하루일 수 있다.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처럼 특별한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드리기도 한다. 혹은 새 손주를 얻었을 때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순간이 될 수 있다. 교인들은 이 모든 특별 감사 헌금을 생일 감사 헌금으로써 십일조 봉투에 표시해서 드린다.

그렇다면 생일 감사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 이 헌금은 선교를 위해 복미 밖의 타 지회로 보내져 선교 활동에 사용된다. 이 헌금의 대부분은 복음 전파 활동에 사용되지만 일부는 클리닉, 병원, 교육 기관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또한 이 헌금의 일부는 선교사들을 새로운 지역으로 보내어 재림 기별을 전파하도록 대총회 선교 프로그램 담당 부서에서도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의 감사의 예물이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교회 기관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게 된다. 이 헌금은 감사한 마음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onference Advance(합회 지원 헌금)

합회는 지역 교회들과 자매결연으로 맺어져 있어 각 교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합회 지원 헌금은 이러한 특별한 필요와 지역의 다양한 특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드려지는 헌금이다. 이 헌금의 가장 큰 사용처 중 하나는 기독교 교육 기금이다. 합회 지원 헌금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지역 사회의 복음 전파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 교회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프로그램과 홍보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어린이 전도, 도시 전도, 방학 성경 학교, 여름 캠프, 청소년 선교도 이 헌금이 지원하는 분야이다. 합회 지원 헌금의 또 다른 혜택은 인기 있는 연합회 신문과 잡지를 교인들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익한 출판물은 넓은 지역에 걸쳐 사는 교인들을 단결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인생을 바꾸는 프로젝트들은 교인 개개인이 수입의 1~2%를
합회 지원 헌금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Local Church Budget(지역 교회 예산)

아마도 개인 헌금 계획에서 다루는 가장 분명한 분야는 지역 교회일 것이다.
모든 가정에서처럼 지역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전기와
난방시설처럼 어떤 것들은 그 필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린이 잡지, 안식일 학교 성경
공부 교재, 교육 용품, 교직원 급여, 청소비, 교회 학교 운영자금, 보험, 학생
기금, 그리고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러한 지출은 지역
교회가 지역 사회의 빛이 되기 위해 매달 감당해야 하는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개인 헌금 계획은
수입의 3~5%를 지역 교회 예산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조직적인 헌금은 지역 교회의 축복과 책임을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Mission Investment Offering(선교 투자 헌금)

선교 투자 헌금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파트너십이다. 먼저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선교 투자 헌금에 수입을 헌신하는 것이다.

닭 관련 사업의 예를 들어보자. 켈리 로즈 비숍이 십대였을 때 그녀는 계란
사업의 10%를 투자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단골 손님들과
집에 들리는 사람들에게 계란을 팔았다. 두 달 후 그녀의 매출은 50%
증가했다. 이것이 바로 파트너십이 역사하는 방법이다. 그녀는 수입의
10%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의 몫), 그 10%는 더 큰 수입을
가져왔기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업에 축복해 주셨다고 믿는다. 그
큰 수입은 하나님의 몫이었다.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맺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쿠폰을 사용하여 절약한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외식할 때 디저트를
사먹지 않고 절약한 돈을 드릴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조깅을 하면서

주운 알루미늄 캔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투자 현금으로 드리기도 한다. 이렇게 드린 모든 현금은 재림 기별을 해외에 전파하는데 사용된다. 오늘 당신만의 선교 투자 현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라.

Sabbath School Mission Offering(안식일 학교 선교 현금)

안식일 학교 선교 현금 봉투가 오면 보통 1 달러나 2 달러를 집어넣는다. 하지만 그 현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게 되면 더 드리고 싶게 될 것이다!

선교 현금은 북미 지회 외 타 지회의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진다. 이 현금의 많은 부분이 복음 전파 활동에 사용되지만, 일부는 클리닉, 병원, 교육 기관을 돕기 위해 보내진다. 세계 라디오 선교 (Adventist World Radio) 역시 이 현금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일부는 재림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 새로운 임지로 보낼 선교사를 교육하는 대총회 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된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현금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 퍼져 나간다.

World Budget Offering(세계 선교 현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이며, 세계 선교 현금은 이 세계적인 선교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다.

재림교회 초창기부터 재림교인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다 너머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사명을 감당해 왔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매일 3,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교회 중 하나가 되었다. 200 여 개 국가에서 600 여 개 언어로 속히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세계의 가난한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선진국에 사는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구성원들의 특권과 의무였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현실에 대응하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의 현금은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개인 헌금 계획은 수입의 1~3%를 이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 정해 놓도록 제안하고 있다. 우리가 협력할 때 재림 기별이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이다.

Special Projects Offerings(특별 프로젝트 헌금)

이 헌금은 여성전도부와 기독교 기록 사역과 같은 사역을 포함한다. 개인 헌금 계획은 프로젝트마다 필요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정 비율을 제안하고 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러한 헌금은 지역 교회 건축 계획이나 선교 여행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 특별 프로젝트에는 아드라 (ADRA) 및 세계 라디오 선교 (Adventist World Radio)와 같은 재림 교회 내 기관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재림교회 사역팀의 도움 요청도 포함된다.

2026 북미 지회 안식일 학교 선교 투자 헌금 프로젝트

COLUMBIA UNION(컬럼비아 연합회)

펜실베이니아 합회는 해리스버그 지역에 정착한 부탄 출신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종교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서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영적 및 실질적 필요를 채워 주고 있다.

LAKE UNION(레이크 연합회)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에 있는 베리안 트랜스포메이션 센터(Berean Transformation Center)는 노숙인을 위한 서비스, 청소년 역량 강화, 정신 건강 프로그램, 금융 교육 수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다가가고 있다. 모금된 헌금은 이러한 프로젝트와 더불어 관련 시설 개선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SOUTHERN UNION(남부 연합회)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루이빌 어드벤티스트 아카데미(Louisville Adventist Academy)는 현재 공간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지역사회의 재림교인 및 비재림교인 자녀들을 위한 사역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실 5 개, 무대가 있는 체육관, 주방 그리고 그 밖의 필수 시설들이 필요하다.

발표자님께

귀 교회에 본 헌금 호소문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분명 멋진 기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발표자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이 자료를 사용하기 전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안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기도: 성령의 능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발표자님의 봉독을 통해 회중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습: 호소문을 숙지하도록 적어도 세 번 이상 읽는 것은 제안 드립니다.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읽습니다. 읽는 동안 강조할 핵심 단어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합니다. 호소문을 탁월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합니다.

준비: 때때로 특별 헌금일을 위한 자료들이 교회로 전달 되어 성도들에게 나눠주거나 혹은 호소문과 함께 발표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경험: 호소에 힘을 실어줄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봉독하기: 위의 모든 요소를 갖고 봉독할 수 있지만 열정이 없다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호소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발표자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2026 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발표자님을 풍성하게 축복하셔서 발표자님의 낭독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필자: 앤서니 리드(Anthony Reid)

편집자: 마이클 하프(Michael Harpe), 루디 살라자르(Rudy Salazar) & 리사
라스무센(Lisa Rasmussen)

북미 지회 청지기부 © 2026

2026 년 1 월 3 일

지역 교회 예산

새해의 시작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와 설렘이다. 그리고 새로운 해가 제공하는 기회이다. 새해는 과거에 겪은 어려움들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게 한다. 또한 우리에게 미래를 낙관적인 시선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기회를 준다. 이런 이유로 나는 '새로움'을 좋아한다. 여러분은 어떤가?

바울도 '새로움'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빌 3:13, 14)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앞서 이끄실 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해의 가능성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한 더 나은 청지기가 되기 위해 정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올해 목표에는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하나님과 '강철' 같은 단단한 관계를 갖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그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재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몫을 신실하게 돌려드리며, 우리의 세상과 환경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올해 2026 년을 지역 교회와 전 세계를 위한 헌신과 관대한 헌금이 가득한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 가자.

2026 년 1 월 10 일

종교 자유 안식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150 년 이상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 자유를 굳게 지켜 왔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는가?

그 이유 중 일부는 우리 교회가 창립될 당시 거의 모든 미국 주(州)에 일요일 준수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재림교회 목회자들, 농부들, 노동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일요일에 “세속적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투옥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 심지어 1882년에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제임스와 엘렌 화잇의 아들인 윌리 화잇도 퍼시픽 출판사(Pacific Press Publishing)의 인쇄기를 일요일에 가동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적이 있다. 그러나 종교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법정에서, 정치인들 앞에서, 그리고 리버티(Liberty) 잡지를 통해 계속해서 종교 자유를 지키는 더 깊은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 엘렌 화잇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소망, 22)기 때문이다.

오늘 이 중요한 종교 자유 사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자. 이 사역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지킬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역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26 년 1 월 17 일

지역 교회 예산

아마도 여러분은 인내는 미덕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인데 그 말은 사실이다. 그리고 인내와 밀접하게 연결된 또 다른 진리가 누가복음 18 장 1~8 절의 비유 첫 절에 나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1 절) 한다고 말씀하셨다. 오늘날처럼 빠르고 즉각적이며 '지금 당장' 얻어야 하는 세상에서 인내하며 낙담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질이다. 이 비유 속 과부는 기도와 간구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기 삶을 어렵게 만드는 원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계속 요청한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은 그녀의 끈질김에 굴복하여 그녀를 변호해 주게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부지런하고, 그리스도의 개입을 간구하며,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그리고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그분을 높이고 존귀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비유 속 재판장과 달리 우리의 간구에 지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오늘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침으로 그분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재물과 소득의 첫 열매로 그분을 지속적으로 존귀케 하는 일에 동참하자.

2026 년 1 월 24 일

합회 지원 헌금

합회 지도부는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교회를 지도하는 사명을 맡고 있다. 이 일을 위해 합회는 최소한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수행한다. 첫째, 가정사역부와 같은 전문 인력을 포함해 목회자를 제공한다. 둘째,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 합회가 후원하는 선교 활동을 장려한다. 셋째, 합회는 재림교회 학교들을 지원하고 감독한다. 넷째,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교회, 학교, 기타 시설을 건축한다.

이 사역의 많은 부분에서 십일조는 목회자와 합회의 전문 사역 및 인력의 급여만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합회는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재정적 헌신에 의존한다. 이러한 여러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부분의 합회에서는 매월 한 번 특별 헌금을 모금한다. 합회마다 이 헌금의 이름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합회 지원 헌금(Conference Advance)이라고 부른다. 헌금 금액은 각자가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의 1.2%를 드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헌금이 모아지면 지역 교회 재무가 합회로 송금한다.

헌금을 통해 합회 사역에 헌신적으로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2, 9)는 말씀을 기억하기 바란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시기를 바란다.

2026 년 1 월 31 일

지역 교회 예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세상은 창조주의 손에서 새롭고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선언하셨다. 창조는 흠 없고 완전했다. 우주 안에는 불화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과일을 먹기로 선택한 그날부터 우리 행성은 매일 조금씩 쇠퇴해 왔다. 우리는 이 쇠퇴의 영향을 인간을 괴롭히는 육체적 질병에서, 극에 달한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깨진 관계에서 비롯된 사회적 불안정에서, 그리고 전쟁과 소동으로 나타나는 지리적인 긴장감에서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퍼즐 속에도 희망이 있다.

요한계시록 21 장 1-5 절에서 요한은 위대한 퍼즐 해결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곳에서 이전의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 새 하늘 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에서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인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4 절)기 때문이다. 고통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C. S. 루이스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기쁨은 하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새 왕국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일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자.

2026 년 2 월 7 일

지역 교회 예산

1978 년 존 폴 영의 노래 "모든 곳에 사랑이 가득해요(Love Is in the Air)"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 그 노래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내 눈길이 가는 모든 곳에 사랑이 가득해요. 모든 풍경과 모든 소리에 사랑이 가득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래가 쓰이기 훨씬 전인 1860 년 존 휴 맥노튼이 작곡한 사랑이 가득한 찬미가 "아름다운 우리 집(Love at Home)"을 불러왔다. 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 있는 집 기쁨 넘쳐 흐르네 사랑 있는 집."

사랑에 대해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정말로 사랑이 모든 곳에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꽃과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가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기억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 5:25). 갈보리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비할 데 없으며, 인류를 위한 구원을 확정하고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십일조와 자원하는 헌금을 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도록 하자. 그럴 때 사랑이 모든 곳에 가득할 것이다.

2026 년 2 월 14 일

TV 방송 선교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미디어가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년 동안 북미 지회는 *It Is Written, Voice of Prophecy, Breath of Life, Faith for Today, La Voz de la Esperanza, Jesus 101, LifeTalk Radio* 등과 같은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들과 협력해 왔다. 이 사역들은 그물을 넓게 던져서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이 접촉하는 많은 영혼들은 구도자가 되어 지역 교회와 연결되어 그리스도께로 인도된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3 장 47-48 절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TV 방송 선교는 오늘날의 ‘사람 낚는 어부’로서 도시와 가정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닿기 어려운 ‘콘크리트 정글’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그물을 던지고 있다.

엘렌 화잇은 100 년도 훨씬 전에 이미 이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는 큰 도시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우리 교회들에게 제시해 주라는 지시를 거듭거듭 받았다. 이미 우리 교회들이 세워진 곳에서 큰 사업이 성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전혀 진리를 전해 본 일이 없는 여러 곳에서도 큰 사업을 성취해야 한다.”(전도, 32)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다. 오늘 우리의 헌금을 통해 TV 방송 선교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을 계속 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후한 헌금을 드리자.

2026 년 2 월 21 일

지역 교회 예산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며, 어린이들 역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을 어떻게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 부르심에 참여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지침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 그리고 쉴 때에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신 6:6-7)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도 자녀들에게 청지기의 개념을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예배와 그분과의 관계를 쌓는 데 사용하는 것, 마음과 몸을 잘 돌보는 것,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선교하는 데 사용하는 것, 환경을 돌보는 것, 그리고 십일조와 자원하는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 헌금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본으로 가르쳐야 한다. 엘렌 화잇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만일 모든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헌금을 주님께 바친다면 그 헌금은 작은 시냇물이 될 것이요, 그것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강을 이루게 될 것이다."(청지기, 293)

오늘 우리가 모두 십일조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삶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이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자.

2026 년 2 월 28 일

합회 지원 헌금

북미지회 지역 내 많은 합회는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다양한 수준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 기부자들, 여러 단체, 합회와 연합회의 보조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교육 철학을 믿는 교인들의 헌금이 있다. 이 교육 철학은 참된 교육이 구원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한다. 즉 단순히 학문적 지식 습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에 헌신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엘렌 화잇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교육 사업과 구속 사업은 하나다.”(교육, 30) 즉 학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노력과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는 뜻이다. 지혜자 솔로몬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 9:10).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미래 세대가 우리를 가리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충실히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합회 지원 헌금에 동참하자.

2026 년 3 월 7 일

지역 교회 예산

혹시 버림받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때때로 외로이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캐나다 심리학자인 젠 툴 박사는 아동 애착에 대해 글을 쓰면서 애착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양육과 보호를 제공받기 위해 의존하는 두 사람 간의 정서적 관계”¹ 라고 설명했다. 아동의 경우 부모나 특정 보호자(예: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며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아이는 여러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 아이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애착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양한 불안감을 안고 자라게 된다는 뜻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창조주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사야 49 장 15 절의 말씀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일조와 헌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역 교회의 예산을 위해 드림으로써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

¹ <https://cpa.ca/attachment-in-children/>

2026 년 3 월 14 일

세계 라디오 선교(AWR. 대총회)

(헌금 안내자가 참고할 사항: AWR 2026 영상과 최신 헌금 자료를 awr.org/offering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세계 라디오 선교(Adventist World Radio, AWR)는 여러 민족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현지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꿈에 있는 AWR의 단파 송신탑에서부터 전 세계 2,000 여개에 이르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매일 130 개 이상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또한 라디오 방송 범위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AWR은 유튜브 영상, 앱, 휴대전화 선교 메시지와 소셜자를 통해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갓팟(Godpod)'도 죄수들부터 목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최근 마다가스카르에서 한 도둑 두목이 갓팟을 라디오라고 생각하고 훔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동굴 깊숙한 은신처에서 이 "라디오"를 켜 신호를 잡고 방송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았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성경 기별을 듣기 시작했고, 결국 지역 재림교회와 연결되어 성경을 공부한 후 도둑 33 명이 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필리핀에서도 사역의 문이 크게 열렸다. 반군들이 계속해서 총을 내려놓고 그 대신 성경을 집어 들고 있으며, 침례를 받은 후에는 심지어 전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젠가 우리가 그분이 행할 일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랄"(합 1:5)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 라디오 선교(AWR)를 후원해 준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2026 년 3 월 21 일

지역 교회 예산

청년들은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 신앙 공동체의 현재이자 미래를 대표하고 있기도 하다.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교회에 가져오는데 그 안에는 활력, 새로운 관점, 창의성, 시대적 관련성,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 등이 포함된다. 그들을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지속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더욱 굳건한 도덕적·영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한 영적 책임 중 하나가 바로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엘렌 화잇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사업을 돕는 것이 그들의 특권임을 배워야 하며, 자아 부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일에 절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사업에 관계된 모든 사람의 의무다.”(청지기, 292) 이는 청년들이 재정적 헌신, 시간 그리고 재능을 통해 그리스도의 선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솔로몬도 화잇 여사의 권면과 같은 통찰을 나누고 있다. 그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고 말한다. 청년들에게는 그리스도 중심의 청지기직을 본받도록 격려와 도움이 주어져야 한다.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가 가진 은사를 신실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

2026 년 3 월 28 일

합회 지원 헌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으나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의 악의적인 시도가 있을 때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영원한 가치를 지닌 진리와 교훈을 가르치시는 기회로 삼으셨다.

그중 한 교훈이 마가복음 12 장 17 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은 구속이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초청하는 영원한 진리이다. 이 상황은 공격자들의 울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수님의 지혜와 기지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정부를 지원해야 할 의무와 우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을 존귀케 해야 할 책임을 일깨워 주고 있기도 하다.

청지기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초청받는다. 우리는 한 주의 일곱째 날을 예배로 그분께 돌려드려야 하며,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정서적·육체적 건강을 잘 돌보아야 하고, 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쳐 사역과 선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기억하며, 헌물을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자.

2026 년 4 월 4 일

지역 교회 예산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구 역사상 가장 놀라운 날이었다. 그분의 위대한 부활은 저명한 작가이자 기자, 법률 편집자였던 무신론자 리 스트로벨과 같은 사람까지도 움직일 수 있었다. 그의 베스트셀러 『기적인가 우연인가(The Case for a Miracle)』에서 스트로벨은 자신이 어떻게 무신론자에서 신자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는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계기가 되어 2 년 동안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가 부활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철저히 분석한 후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가리키는 증거들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 그는 그리스도께 그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심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3-8).

오늘 헌금을 드리면서 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026 년 4 월 11 일

국제 호프 채널

여러분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6 억 1,200 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중 재림교인은 단 6,614 명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만약 모든 교인이 하루에 한 명씩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254 년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압도적인 현실 속에서 호프 채널(Hope Channel)은 미디어를 통해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한 14 세 소녀가 전쟁으로 가족과 떨어지게 되었다. 홀로 남겨져 두려움에 떨던 그녀는 호프 채널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을 보며 힘을 얻었다. 전쟁이 그녀를 가족과 갈라놓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었다.

호프채널은 재림교회의 전 세계적인 미디어 사역으로 100 개 이상의 언어로 방송되고 있다. 특히 복음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수십억 인구가 사는 10/40 창(원도우)이라 불리는 중동, 에티오피아, 인도와 같은 지역에서 그리고 직접적인 전도가 불가능한 곳에서도 호프채널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텔레비전,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온라인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4 장 6 절은 영원한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호프채널은 이 예언을 현실로 이루어 가고 있다. 오늘 여러분의 헌금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사역을 지원해 주어 감사하다.

2026 년 4 월 18 일

지역 교회 예산

성경은 흥미로운 비유를 들려준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 27:17). 오늘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가 우리를 다듬어 주고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라일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필자가 어느 쌀쌀한 가을날 작은 교회에서 예정된 청지기 주말 부흥회를 위해 한 시간 가량을 운전해 갔다. 예배는 잘 진행되었고, “마음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마치는 찬미와 축도가 끝난 후 식사 전에 교인들과 교제할 시간을 가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필자는 먼저 방송실에 앉아 있던 라일리 성도에게 다가갔다. 필자가 자신을 소개한 후 그에게 예배 중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맞는지 물었고, 새롭게 디자인된 십일조 및 헌금 봉투 사용법을 설명하는 녹화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라일리는 자신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자신을 받아준 세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며 결국 그들의 영향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라일리의 간증은 예레미야 31 장 3 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교회가 서로를 다듬어 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자. 오늘 우리의 헌금을 통해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하고 또 드러내기를 바란다.

2026 년 4 월 25 일

합회 지원 헌금

하나님께서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자랑 없이 희생적으로 헌금을 드려 그분의 일을 세우도록 감동을 주신다. 필자가 어떤 모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뉘진 이야기는 몇몇 헌신적인 후원자들의 신실함과 헌신에 관한 것이었다. 그 중 한 사람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의 팔에 소름이 돋게 할 정도였다. 너무도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였고, 경이로운 이야기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헌신할 당시에는 아직 침례를 받은 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그 간증자가 재림교회와 연결된 유일한 경험은 젊은 시절 조지 밴디맨("It Is Written" 설립자)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던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합회의 본부 건물 확장 공사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아낌없이 헌신했다. 그는 반복해서 기쁨으로 헌금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또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멀리했고,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건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5:10).

오늘 우리가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고, 합회의 필요를 위해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

2026 년 5 월 2 일

지역 교회 예산

1987 년 노스웨스트 항공 225 편이 이륙 직후 추락하면서 155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네 살 소녀 세실리아가 유일하게 생존하였는데 조사 결과 비행기가 추락하던 순간 세실리아의 어머니 폴라 치칸이 자신의 안전벨트를 풀고 무릎을 꿇은 채 딸을 감싸 안아 충격으로부터 보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의 행동이 세실리아를 지켜낸 것이었다. 이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례다.

어머니의 사랑이란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요한복음 13 장 35 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가오는 Mother's Day 을 맞이하면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심에 감사하며 십일조와 헌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란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어머니들을 귀하게 여기듯 더욱 깊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자.

2026 년 5 월 9 일

재난 및 기근 구호 (대총회와 복미 지회)

집 2 층에 갇혀 턱까지 차오른 홍수 속에서 구조 보트가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두려울지 상상해 보라. 테네시 주의 한 부부가 엄청난 허리케인으로 인해 그런 상황을 겪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고 믿으며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구조 보트가 나타나 그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다.

이후 이 부부는 재림교회 재난 구호(Adventist Disaster Response) 배급소를 찾아 긴급 구호 물품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고, 그들이 받은 도움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히 음식과 물품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위기가 닥칠 때 재림교회 재난 구호팀은 미국 전역으로 달려가 허리케인, 토네이도, 산불, 홍수, 심지어 총격 사건의 피해자들까지 돌보며 실제적인 도움과 영적인 위로를 전하고 있다.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 봉사자들은 생존자들 곁에 서서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시편 34 편 18 절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재난이 닥칠 때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금 다양한 필요를 갖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기를 바란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헌금을 통해 또는 www.communityservices.org 에서 이웃들에게 도움과 위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함께해 주기 바란다. 여러분의 헌금은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다.

2026 년 5 월 16 일

지역 교회 예산

우리의 교회는 단지 물리적인 구조물로써의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이든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가 진심으로 환영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겉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난 부족함을 바탕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치유와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다. Magnify 팟캐스트의 진행자이자 세미나리 교수인 캐서린 데이비스는 “우리의 결점을 숨기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결점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¹ 고 말한다.

예수께서도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으셨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막 2:17).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고, 사람들이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인내하시고 친절하시지만 사탄은 “형제들을 고발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고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정죄 받은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확신을 주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

오늘 헌금을 드리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즉 모든 이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집이 되는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갈 것을 다시 다짐하는 시간을 갖자.

¹ <https://www.ldsiving.com/how-to-make-our-church-communities-the-safest-place-to-make-mistakes/s/11798>

2026 년 5 월 23 일

합회 지원 현금

특별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많은 합회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모금 방법을 모색해 왔다. 캐나다의 한 합회에서는 교회 건축 투자 기금(Church Building Investment Fund, CBIF)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기금의 기본 개념은 모든 교인이 매 안식일마다 체계적으로 2 달러씩 헌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헌금은 연말에 합회 재무부에서 집계한 후 일정한 공식에 따라 각 교회에 재분배되어 모기지 상환을 돕는 데 사용된다. 이 방식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시행되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후 8:1-3)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며 합회의 사역에 동참할 때 엘렌 화잇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다: "그대가 주님을 첫째로 모시고, 또한 주의 전이 빛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축복하실 것이다."(청지기, 262)

오늘 합회를 위한 헌금에 동참하여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

2026 년 5 월 30 일

지역 교회 예산

“우리는 얻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지만, 주는 것으로 삶을 만들어 갑니다.” –
원스톤 처칠

필자가 수십 년 전 처음 재림교인이 되었을 때 AY(청년회) 프로그램에서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었다. 그 곡은 말비나 레이놀즈가 쓴 “Love is Something”이라는 노래였는데 저녁 헌금을 드릴 때 불렀었다. 그 곡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 된다: “사랑은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다 주는 것, 그러면 오히려 더 많아져요.”

사랑이 더 큰 사랑을 낳는다는 이 진리는 너무도 분명하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그 열매는 풍성해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나눌 때 그 축복은 흘러 넘쳐 돌아올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10).

또한 사도행전 20 장 35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사랑과 감사로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 드릴 때 하늘의 넘치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6 년 6 월 6 일

지역 교회 예산

한 아들이 늙고 쇠약해진 아버지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갔다. 아버지는 연로하고 기력이 약해 음식을 먹으면서 셔츠와 바지에 음식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은 불쾌하게 여겼지만 아들은 차분하게 아버지를 돌보았다. 식사가 끝난 뒤 아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화장실로 모시고 가서 음식 부스러기를 닦아드리고, 얼룩을 지워드리며, 머리를 빗겨드리고, 안경을 고쳐 쓰게 도와 드렸다. 두 사람이 다시 나왔을 때 식당 안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은 계산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나가려 했다. 그때 식당에 있던 한 노인이 아들을 불러 세우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모든 아들에게 교훈을 주었고, 모든 아버지에게 희망을 주었소."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롬 15:1).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다. 연민과 공감을 나누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오늘 우리가 십일조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드리자.

2026 년 6 월 13 일

여성전도부 사역 헌금(복미 지회)

오늘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공헌을 기념하는 특별한 안식일이자 여성전도부 강조일이다.

매일 여성들은 요한복음 13 장 34 절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다양한 필요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 그들은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며, 목적을 가지고 섬기며, 기도하고, 멘토링하고, 제자 삼고,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는 이들을 위로한다. 건강 박람회, 학대 예방 워크숍과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조직하고, 기쁨과 웃음과 교제를 나누는 모임을 주최하면서 치유와 성장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식사를 배달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생필품을 제공하며, 암 환자들을 돕는다. 그들은 선교 활동을 이끌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다른 여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사랑을 실제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다.

여성전도부는 여성이 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훈련과 자료, 영적 성장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교육이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여 여성전도부는 여성전도부 장학기금을 통해 재림교회 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들을 지원한다.

여러분이 여성전도부를 위해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헌신한 여성들에 의해 변화된 삶을 사는 이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성장하고, 인도하는 여성들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2026 년 6 월 20 일

지역 교회 예산

1992 년 올림픽에서 영국 단거리 선수 데릭 레드먼드는 400 미터 경주에서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 도중 트랙 절반쯤 지났을 때 그의 햄스트링이 파열되어 그는 고통 속에 쓰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절뚝거리며 결승선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보안선을 뚫고 경기장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그는 다름 아닌 데릭의 아버지 짐 레드먼드였다. 스태프들의 제지를 무시한 채 짐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자 눈물을 흘리며 데릭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전 꼭 해야 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부축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끝내자."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짐은 아들을 끝까지 부축하며 결승선에 함께 도달했다.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는데 그것은 데릭이 우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다. 짐은 메달이나 기록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아들의 곁에 있고 싶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 속으로 달려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를 업으시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도록 도와주신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사 46:4).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요일 3:1).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리기를 바란다. Happy Father's Day!

2026 년 6 월 27 일

합회 지원 헌금

캠프는 단순히 사회적 교류와 교제를 위한 장소만이 아니다. 비전이 새롭게 다져지는 곳이기도 하다. 필자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교육을 더 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2 년 뒤에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곧이어 재림교회 대학에 지원했다. 합격 통지를 받고 매우 기뻐했지만 기대했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도 경험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한 사건으로 인해 그 실망감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

실망감을 안고 학교가 소속된 합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캠프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되었다. 캠프는 실망한 필자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열정을 갖고 대학 진학의 꿈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 입학한 해에 학생 근로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4 년 후 목회학을 전공하여 졸업할 수 있었다.

정말로 예레미야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캠프는 참석자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영감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캠프 사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헌물로 인해 캠프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6 년 7 월 4 일

지역 교회 예산

여러분은 혹시 북미 지회에 속한 나라 중에 7 월 첫째 주에 국경일을 기념하는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 바로 7 월 1 일을 기념하는 캐나다와 7 월 4 일을 기념하는 미국이다. 먼저 두 나라에 국경일을 맞이한 것에 축하를 전한다. 한 나라의 국경일은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기념비적 사건을 기리는 날이다. 이는 그 나라가 이제 자기 정부와 법 아래에서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경일이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종교적 절기와 같지는 않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유대-기독교 신앙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레 25:10)는 말씀을 따라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자유의 선물을 기념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자유의 땅에 살게 된 것에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따라 헌신해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 33:12)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우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로 인해 각 지역 교회의 금고가 결코 비지 않기를 바란다.

2026 년 7 월 11 일

세계 선교 헌금(대총회)

치타는 그 속도와 민첩함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불과 3 초 만에 시속 0 에서 60 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육상 동물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재림교회에 닥칠 때에도 우리 역시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위기를 하나님의 사명을 전 세계에 더욱 강력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분의 세계 선교 헌금은 동유럽의 한 선교 센터와 노르웨이의 텔레비전 방송국들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스웨덴에서의 종합 건강 전도 프로그램과 아프리카에서의 에볼라 교육도 지원하였다. 그리고 르완다에서 지역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수백 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생겼고, 그로 인해 교회 건물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건물을 구비할 수 있었다.

우리의 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려움과 동시에 기회를 마주하는 가운데 재림 기별이 많은 나라들에서 전파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전해질 수 있도록 넉넉히 헌금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기도: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확장하기 위해 아낌없이 드리라는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또 신속히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2026 년 7 월 18 일

지역 교회 예산

모든 청지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달란트를 부여 받았다. 신실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확장시킬 기회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받은 달란트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증가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연습하면 더 정확한 음을 내어 그가 부르는 노래의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재정적 자원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우리의 은행 계좌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 장 14-30 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받은 자원을 늘리는 것의 중요성과 주인의 기대를 강조하고 있다. 비유의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여 그분께서 맡기신 자원을 늘려가기를 기대하신다. 사실 비유 속에서 달란트를 늘린 자들은 더 많은 것을 받았다.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다(21, 23 절).

오늘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지역 교회의 사역과 선교를 돕도록 하자.

2026 년 7 월 25 일

합회 지원 현금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드러내는 몇 가지 지표를 세우셨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십일조를 신실하게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 액수를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 10 분의 1 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비율이다.

많은 이들이 십일조의 목적과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성경은 십일조의 여러 목적을 제시한다. 첫째,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제사장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것이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전 9:13-14). 둘째, 십일조는 사역자들을 지원한다(신 14:28-29). 셋째, 십일조는 예배의 한 형태이다. 또한 십일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말 3:8-12).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 외에도 십일조는 청지기의 삶의 일부로써 우리의 품성을 형성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십일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역과 합회가 수행하는 사역들을 지원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자.

2026 년 8 월 1 일

지역 교회 예산

핸드백은 주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개인적인 소지품을 담고 있다. 어느 목회자의 아내가 여성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던 중 자신의 백을 들고 나와 여러 가지 물건을 꺼내 보였다. 그녀는 물건 하나하나를 꺼내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했다. 휴대전화: "이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지갑: "이것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 "이것은 저의 통증을 없애줍니다." 얼룩 제거제: "이것은 얼룩을 지워줍니다." 작은 칼: "이것은 저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느끼게 해줍니다(물론 저는 이것으로 과일 껍질을 벗기는 데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콜릿: "제가 기분이 가라앉을 때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물건들의 설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핸드백에 무엇을 넣을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백에는 꼭 필요한 것만 담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핸드백이 주는 유익보다 훨씬 크고 더 풍성한 것을 제공한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벧후 1:3).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핸드백에 그리스도를 담자. 그리고 십일조와 헌금을 드림으로 주님을 경배하자.

2026 년 8 월 8 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기록 사역(북미 지회)

여러분의 시력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몇 년 전 클라우디아는 최근에 침례를 받은 한 청소년과 장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클라우디아는 심각한 시력 장애로 인해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하고, 읽고,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할 때 침례 받은 로저라는 청년은 큰 충격을 받았다. 클라우디아는 약 10 년 전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법적으로도 전맹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재림교인이 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기록 사역(Christian Record Services)에서 제공하는 여러 출판물들을 읽었다.

로저는 클라우디아의 집을 떠난 뒤 스스로 눈에 천을 두르고 하루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생활해 보기로 했다. 그는 방 안의 가구, 그릇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의 위치를 외워두려 했다. 하지만 한 시간밖에 버티지 못했다. 계속 부딪히고, 물건을 찾을 수 없었으며, 점점 좌절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돌렸던 천을 벗었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기록 사역은 시력이 매우 약하거나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료와 봉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또한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무료 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기록 사역을 위해 후하게 헌금할 때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과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헌금은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돕고, 또한 마태복음 28 장 18~20 절에 기록된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2026 년 8 월 15 일

지역 교회 예산

온타리오 합회의 청지기부는 청지기에 관한 간단 길잡이(Quick-Start Guide on Stewardship)를 통해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성도들을 다섯 부류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첫째,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교회의 사명을 위해 거의 아무것도 바치지 않으며, 종종 청지기 직분의 책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둘째, 가끔 헌금하는 사람들: 이들은 교회 출석도 불규칙하여 헌금도 그저 형식적으로 소액만 드리는 사람들이다. 셋째, 선택적으로 헌금하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는 부류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업에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다. 넷째, 충동적으로 헌금하는 사람들: 이들은 비교적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하지만 헌금은 가끔씩만 하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큰 액수를 드리기도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고 쉽게 열정이 식는다. 마지막으로 헌신적으로 헌금하는 사람들: 체계적으로 헌금하는 이들로 교회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교회의 사역을 충실히 지원한다. 헌신적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은 '드리는 일'의 기쁨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도 체계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헌금은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교회와 그 사역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또한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깊은 만족감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기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일조와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고후 9:6-8) 받는 우리가 되자.

2026 년 8 월 22 일

합회 지원 헌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할까? 그 해답 중 하나는 캐나다 재림교회가 발행하는 Canadian Adventist Messenger 잡지에 실린 「선교를 위하여(For the Sake of Mission)」라는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 더글라스 페레이라는 당시 28 세였던 제임스 화잇의 헌신과 결단을 요약하고 있다. 발을 다친 상태에서도 제임스 화잇은 자동차로 13 분 거리인 코네티컷주 록키 힐에서 미들타운까지 13 킬로미터(약 8.6 마일)를 걸어 다녔다.

그는 왜 이런 고생을 감수했을까? 이런 결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페레이라는 제임스 화잇이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 대한 열정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 결과 1849 년에 The Present Truth 초판 1,000 부가 인쇄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그분의 일을 지원하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기를 기대하신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헌금할 때 우리 또한 합회의 사역을 지원하는 동기로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란다.

2026 년 8 월 29 일

지역 교회 예산

청년들은 서로에게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으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느 십대 소녀가 친구들 몇 명이 수학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정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그녀에게 털어놓았고, 그녀는 자신이 아는 것을 친구들과 나눠도 될 지 물어보았다. 친구들은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친구들을 도운 결과는 놀라웠다. 친구들이 수학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가르쳐 준 본인도 개인적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드디어 시험을 보게 되었고 함께 공부한 모든 친구들이 더 좋은 성적을 얻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신감을 얻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수학 과목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마가복음 2 장 1-12 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온 네 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 청지기의 사명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십일조와 감사의 헌금을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의 도움을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한다.

2026 년 9 월 5 일

지역 교회 예산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필자가 대학에 입학한 첫 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 식품 공장에서 1 년 동안 근로 장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두 가지 유익이 있었다. 첫째, 학비의 상당 부분을 벌여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결국 4 년 후에 졸업까지 할 수 있었다. 둘째이자 가장 값진 것은 콘플레이크를 만드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된 것이다. 의미 있는 노동에 참여할 때 자존감, 만족감, 목적의식 그리고 존엄성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다. 이 경험은 지금까지 근면한 직업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동이 가져다 줄 유익을 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일구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다(창 2:15). 성실히 일하는 자는 풍요로움을 얻고(잠 14:23), 만족을 누리며(잠 13:4), 부유하게 된다(잠 10:4).

며칠 앞으로 다가온 노동절(Labor Day)을 맞이하며,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그분의 사업을 위해 기꺼이 돌려 드리자.

2026 년 9 월 12 일

세계 선교 헌금(강조: 라디오 선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계획하신 방법은 바로 그분의 백성들이 드리는 십일조와 자원하는 헌금이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라디오를 통해 전 세계에 재림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된다.

재림교회의 라디오 선교는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선교 사역으로는 접근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곳에도 사람들에게 다가가 깊은 영향을 끼쳐 왔다. 라디오 전파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다. 라디오는 자동차 안에서도 혹은 문이 굳게 닫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방 건너에서도 들을 수 있다. 로마서 10 장 17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헌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를 통해 재림교회의 기별을 듣게 될 것이다. 많은 청취자들이 성경 통신학교에 등록하거나 직접 방문을 요청하기도 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고립되고, 불안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라디오는 위로와 소망을 전해준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신앙에 기반을 둔 라디오 방송은 평안과 영적 위로를 준다.

재림교회는 AWR(Adventist World Radio)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라디오 방송국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재림교회의 특별한 소망과 전인적 기별을 전하고 있다.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재림교회 라디오 방송국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 년 9 월 19 일

지역 교회 예산

디모데전서 5 장 18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신명기 25 장 4 절에서 모세가 소에 대해 말한 것과 누가복음 10 장 7 절에서 예수께서 일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북미 지회 청지기부장을 역임했던 존 매튜스는 이렇게 말했다. “소에 관한 구절은 소가 일하는 동안 곡식을 먹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헌신하는 일꾼들도 품삯을 받아야 마땅하다.”(John Mathews, Stewardship: Motives of the Heart, p. 66).

하나님께서서는 질서와 체계를 만드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십일조 제도이다. 십일조 제도는 성막을 관리하던 레위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민 18:24). 오늘날 레위인에 해당하는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다. 엘렌 화잇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십일금은 특별한 용도를 위하여 구별된 것이다. 이것을 구제기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의 부양을 위하여 특별히 쓰여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목적에서 이탈될 수 없다.”(청지기, 103)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역 교회와 더 넓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십일조와 헌금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하자.

2026 년 9 월 26 일

합회 지원 현금

1982 년 단 아홉 명의 학생이 다니던 한 작은 교회 학교가 학년을 마칠 때 4,000 달러의 적자를 안게 되었다. 그 학교가 속한 합회는 그 교회에 빚을 갚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

새로운 목회자가 9 월에 부임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교회 재무와 수석 장로에게 물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답했다. "우리엔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두 달 만에 자금을 모아야 했던 그때 그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약속을 지키고 빚을 갚아야 할 필요성을 다시 일깨웠다.

그러자 한 익명의 후원자가 나서서 만약 교회가 남은 빚의 절반을 갚는다면 자신이 두 달치 월급을 현금하여 나머지 절반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 다음 안식일 교회 재무는 뜨겁게 호소했다. "이 놀라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헌신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호소에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현금이 쏟아져 들어와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다. 오늘날 그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하는 번창한 교육기관이 되었다.

우리 합회의 사역 역시 우리의 자아 희생적이고 체계적인 헌신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모두 신실하게 그리고 넉넉한 재정적 헌신을 통해 합회의 사역을 지원하자.

2026 년 10 월 3 일

지역 교회 예산

이전에 들은 한 설교문을 나누고자 한다. “예산 과정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는 위원들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예산 검토 위원회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회의 과정을 신뢰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과정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예산과 그것이 담고 있는 모든 사역과 사명 역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모두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이 예산을 지지하겠다. 나는 교회의 재정 사역을 관리해 온 위원들을 지지하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교회의 진실한 노력을 신뢰하겠다.’”¹

예산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신뢰의 문제이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보여 준다.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4 장 2 절에서 말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오늘 우리가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산 원칙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보여 주게 될 것이다.”

¹<https://open.bu.edu/bitstream/handle/2144/498/Conversion+of+the+Purse.doc?sequence=1>

2026 년 10 월 10 일

연합회 지원 현금

데스몬드 도스는 겸손한 군 의무병이었지만 군 복무 중 비폭력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는 이유로 종종 조롱을 받았다. 그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면 동료들은 그의 머리 위로 군화를 던지곤 했다. 그는 비폭력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확고한 입장 때문에 겁쟁이라는 등의 모욕을 당했다. 그러나 1945 년 오키나와 전투에서 도스는 무려 75 명의 생명을 구했다. 그는 적의 포화와 저격수 그리고 험난한 지형을 뚫고 사람들을 살려냈다.

그의 이러한 용기와 희생으로 인해 그는 최고의 군사 영예를 받았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1945 년 10 월 12 일 도스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이 봉사는 큰 대가를 요구했다. 동료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도스는 부상을 입고 전장에서 후송되었으며, 그의 몸에는 17 개의 파편이 남게 되었다. 이후 5 년 반 동안 그는 치료를 받아야 했고, 결국 청력을 잃게 되었다.

도스의 놀라운 생애는 우리에게 봉사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본보기이며 기억해야 할 유산인가.

오늘 우리가 넉넉히 현금을 드림으로 우리는 지역 사회와 여러 사역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2026 년 10 월 17 일

지역 교회 예산

“사랑으로 드리고, 하늘에 쌓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지금 가지고 있다면, 사랑으로 드리고, 하늘에 쌓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라는 후렴은 수 주간 이어진 대형 전도 장막 집회 동안 매일 밤 헌금 시간에 사용되던 인기 후렴구였다. 그 장면은 여전히 필자의 기억 속에 생생하다. 봉사자들이 통로를 오르내리며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예배자들의 헌금을 모았다. 이 후렴구 가사를 살펴볼 때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우리의 헌금이 무엇을 기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리와 동기는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보좌의 기초이며, 우리를 창조하기로 한 결정의 동기였다.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타락 이전에 이미 구속의 계획을 세우게 하였다. 그분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그분을 하늘 보좌에서 떠나 십자가로 향하게 하였다. 이 사랑이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3 장 16 절에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오늘 우리가 십일조와 헌금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해 동기를 얻고 변화되기를 바란다.

2026 년 10 월 24 일

합회 지원 헌금

말라기 3 장 10 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이라”고 초청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창고란 무엇이며 어디인가?”라고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민수기 18 장 21 절에서 이렇게 답한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또한 하나님은 신명기 12 장 6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일조와 자원하는 헌금을 그분이 택한 장소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다. 솔로몬 시대에는 십일조가 성전으로 드려졌는데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그들의 생계를 공급받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가 말한 “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는데 그곳은 바로 십일조가 관리되는 중앙 장소였다.

마찬가지로 재림교회는 “창고”를 “합회” 혹은 “대회”라고 정하고 있다. 교회 목회자들과 복음 사역자들의 월급이 바로 합회 혹은 대회를 통해 관리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십일조와 헌금을 지역 교회를 통해 합회 재무부에 드리도록 권장되며, 이는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십일조와 우리의 자원하는 예물을 합회라는 창고에 드려 그분의 선교가 아무런 방해나 부족 없이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은 앞당겨질 것이다.

2026 년 10 월 31 일

연합회 지원 현금

재정적 부정행위(Financial infidelity)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돈과 관련된 수많은 행동, 활동, 태도를 배우자에게 숨기는 것을 의미한다. 보니 이커 웨일 박사는 그녀의 저서 Financial Infidelity 에서 이 현상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많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은밀한 재정 행동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놀라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배우자에게 재정적으로 부정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기독교적 맥락에서도 나타난다.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어렵지만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재림교인들 중 약 3 분의 1 이 충실하게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불성실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단순한 “잊어버림”이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다(말 3:8). 이러한 강한 표현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불성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강하게 지적한다.

이러한 재정적 부정행위는 단순한 건망증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재정적인 면에서의 충실한 태도는 우리가 그분과 장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그분께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26 년 11 월 7 일

지역 교회 예산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인간의 몸은 60~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도 물처럼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시간은 청지기직의 기초이다.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여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돌보며, 이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며 증인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재능과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다.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여 일하고, 그로 인해 얻은 소득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충실한 십일조와 자원하는 헌금을 드리며, 동시에 우리의 생계를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의 생존을 유지해 주는 환경 즉 이 세상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한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자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십일조와 자원하는 헌금을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5-16).

2026 년 11 월 14 일

세계 선교를 위한 연말 희생감사헌금(대총회)

하나님은 도시를 사랑하신다. 요나서가 그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매우 악한 도시로 보내 그들로 회개하도록 이끄셨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 한 도시가 변화되었다.

예수께서 도시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 100 여년 전 엘렌 화잇은 재림교회가 도시를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경 저편의 지역에 손을 대지 못한 많은 도시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현재 묶여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도시들은 여러 해 동안 등한시되어 왔다."(전도, 428) 우리는 창의성과 인내로써 도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구 100 만 명이 넘는 도시는 580 개이다. 그중 31 개 도시에는 재림교회가 단 하나도 없고, 119 개 도시에는 재림교인이 125 명도 되지 않는다. 엘렌 화잇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도시 사역은 이 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사역이다"(리뷰 앤드 헤럴드, 1910 년 11 월 17 일, 8 문단). 오늘날 전 세계 도시 인구는 그녀가 이 글을 썼던 때보다 13 배 더 많아졌다.

만약 이집트 카이로 주민들이 5 초마다 한 명씩 대 피라미드 앞을 지나간다고 가정한다면 한 명의 재림교인을 보기까지 꼬박 6 일이 걸릴 것이다.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헌금은 전 세계 도시들에 재림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될 것이다.

2026 년 11 월 21 일

지역 교회 예산

"당신의 재능(Aptitude)이 아닌 태도(Attitude)가 당신의 높이(altitude)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다. 태도란 마음가짐, 관점 혹은 누군가나 무언가에 대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태도는 또한 사람의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2013 년판 『지역 교회를 위한 청지기 지도자 안내서(Stewardship Leaders Guide for the Local Church)』에 따르면 "태도는 청지기 정신의 핵심이며,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모든 것의 창조주이자 주인으로 인식할 때 생긴다"라고 말한다(10 쪽).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의 계획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마 2:1-11)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얼마나 훌륭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알아낸 후 기쁨으로 예물을 예수께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억지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린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해 십일조와 자원하는 헌금을 드릴 때 감사하는 태도로 드리자.

2026 년 11 월 28 일

합회 지원 현금

헝가리는 역사상 가장 높은 액면가의 지폐를 발행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액수는 무려 1 경 핑게(헝가리의 통화 단위, 1927 년~1946 년 사용)였으며, 숫자로는 1 뒤에 18 개의 0 이 붙는 금액이다. 실제로 헝가리는 1946 년에 100 경 핑게짜리 지폐까지 발행하며 또 다른 기록을 세웠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물가가 매 15 시간마다 두 배로 뛰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0 경 핑게는 가치는 얼마였을까? 겨우 20 센트에 불과했다.

지난 10 년 동안 캐나다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약 2.5%였고, 미국은 평균 3.2%였다.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은 줄어든다. 즉, 매년 우리가 쓰는 1 달러로 캐나다에서는 2.5%, 미국에서는 3.2%만큼 덜 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비영리 단체인 교회는 자발적인 현금에 의존하고 있다. 체계적인 현금을 실천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우리의 현금도 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36 장 3 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오늘 십일조와 자원하는 현금을 드려 연합회 선교 사업을 위해 헌신하고 동참하자.

2026 년 12 월 5 일

지역 교회 예산

교회의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한 헌금이나 십일조, 감사헌금 등 재정을 드릴 때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액수가 아니라 똑같은 희생이다.” 이 말은 사실이다. 모든 교인이 매번 같은 액수를 헌금 바구니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축복에 따라 예물을 드려야 한다. 희생적인 헌금은 헌금하는 사람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희생적 헌신은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서 잘 나타난다. 마가복음 12 장 41~44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는 헌금이 바로 희생적인 헌금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희생적으로 헌금을 드리자.

2026 년 12 월 12 일

어드벤처리스트 커뮤니티 서비스(북미 지회)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겪는 어려움 또한 각기 다르다. 지난 50 년 이상 동안 어드벤처리스트 커뮤니티 서비스(ACS, Adventist Community Services)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존재가 되어 왔다. 굶주린 이들에게는 음식을, 추위에 떠는 이들에게는 옷을, 집을 잃은 이들에게는 쉼터를, 낙심한 이들에게는 격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사역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최근 한 남성이 지역 ACS 센터를 찾았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는 직장을 잃었고, 집도 잃었으며 희망마저 잃은 상태였다. 한 자원봉사자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옷과 식사를 제공한 후에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떠나기 전 그 남성은 잠시 멈추어 이렇게 말했다. "내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준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ACS 의 정신이다: 사람들을 알아봐 주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엘렌 화잇은 이렇게 말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치료, 143)

ACS 사역을 통해 우리도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 받았다.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헌금은 이러한 사역을 지속시키는 데 사용되어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영적인 격려를 제공할 것이다.

2026 년 12 월 19 일

지역 교회 예산

아기의 탄생은 일반적으로 그 가정에 큰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그 기쁨의 이유는 가족마다 그리고 부모마다 다를 수 있다. 필자의 첫 딸이 태어났을 때 아내와 함께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 오랜 시간 기도해 온 간구가 응답되었기에 너무나도 기뻐다. 이제 우리는 딸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의 공급자이자 유지자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우주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 특히 이 지구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비록 그분은 가축이 머무는 장소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탄생은 하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누가복음 2 장 13~14 절은 이렇게 말한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는 희생 제물, 구주, 대제사장 그리고 곧 오실 왕을 얻게 되었다.

성탄절을 앞둔 복된 안식일에 기쁨으로 예물과 십일조와 헌금을 주님께 드리자. 그리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땅이여 왕을 맞이하라!"

2026 년 12 월 26 일

합회 지원 헌금

올해의 마지막 안식일이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처럼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삼상 7:12)고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예레미야의 감사의 고백을 함께 외쳐 보자: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애 3:22-23).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감사의 표현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외쳐보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시 100:4-5).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얹드려 그분께 경배하자.

주님,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합회 곳곳의 교회 사역을 위해 우리의 예물을 함께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헌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